

이슬성신을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사람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초목도 다 죽고 말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죽게 된 것이냐 하면 생명의 신이 되는 아담과 헤와의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6000년 걸려야 하나님께서 영생체를 만든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단 졌기 때문에 6000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바꿔놓는 그 기간이 6000년인 것이옵니다. 그래서 옛세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레되는 날 쉬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의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쓰여 있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을 읽든 읽어도 그 성경의 진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가운데 짝이 없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짝이 없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박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안 읽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있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씀도 알아야, 몰라요?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옛날 구약성경 시편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쓰여 있는데도 예수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인고로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안 믿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 안 믿었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관광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마다 어떻게 해서 예수의 본거지가 되는 이스라엘에서 회교를 찾아볼 수 없을까, 하고서 목사나 신학박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나 거기에 예수는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왜 없다는 말은 못 하는 거예요. 왜 없는 거를 알아야? 모르니까 말을 못 해요.

예수가 누구 자식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 몰라? 1월 6일이 예수의 생일이라는 걸 유대인들은 다 알죠? 예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을까, 안 비웃을까? 비웃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전부 다 멸시하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요. 미국에 가서 봐도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교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예수 잡놈을 믿으니까. 예수가 잡놈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죠? 예수가 로마 병정 판텔라의 아들이



구세주 조희성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린다

라는 걸 알아, 몰라? 그걸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개똥상놈의 새끼라고 한국 사람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개똥상놈을 사람처럼 여길까, 안 여길까? 안 여길까? 미개한 나라, 우리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좀 미개 국가인고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미개하기 때문에 그래, 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실존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스스로 구세주가 아니라고 해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세한 말씀이 정확하게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정확하게 쓰여 있어. 성경 가운데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 자기는 성령을 받은 자도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 들어가시고 귀신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

을 자백한 거죠? 예수가 한 말이예요. 아 시켰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30절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이것도 예수가 한 말이예요. 자기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가 임금을 지칭한 것이 누군가 하면 이 세상 구세주를 말한 거예요. 이 세상 구세주가 이 세상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은 내 뒤에 오신다 이겁니다. 예수 다음에 온다는 얘기도?

예수는 이슬을 못 내렸으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또한 모세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22절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 게

뭐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어, 안 내렸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이슬 같은 성령을 내려, 안 내려? 이슬 같은 성령을 내리죠?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죠?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는 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가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세주는 한국에서 출현한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국 땅에 나온다고 그랬어, 외국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한국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불경에도 쓰여 있죠?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불경에 쓰여 있죠? 계두왕이 어느 나라 왕이요? 신라 나라 왕이요? 신라 왕인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생미륵불이 나온다고 불경에 쓰여 있으니까 분명히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 신라라고 신라 왕이 지금에 한국이요? 한국에서 이 생미륵불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어요.

또한 성경에는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엔 번역하면 이긴 자요?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약속을 했죠? 이슬이 되어 내린다는 저 이긴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그랬죠? 백합화가 무슨 뜻인지 전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찬송가에는 그 뜻이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량한 새벽

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줄세" 구세주는 백합화라고 그랬죠?

새벽별을 뜻하는 이름으로 구세주 출현한다

또 명량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밝은 명(明)자니까 밝은 새벽별이라 이 소리죠?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세주란 뜻이요? 만인 위에 뛰어나는 줄세 그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을 보니까 뛰어나는 주님이야, 졸자 주님이야? 뛰어나는 주님이요? 찬송가 가사에 구세주는 백합화 밝은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찬송가 가사에는 표현이 된 거죠? 구세주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 자가 백합화 같이 핀다고 그랬죠?

또한 새벽별은 밝은 별이요? 새벽별은 밝은 별인데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부터 28절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긴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이 밝은 별이요? 그러니까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긴자 구세주라는 얘기도? 그래, 안 그래요?

이긴자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자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자가 구세주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믿노라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 몰라? 이걸 모르고 있으니 저들은 구세주를 찾을 길이 있어, 없어? 구세주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아, 몰라? 모르고 있죠?*

2001년 1월 13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2)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이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온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을 찾아오게 된 곡절을 말했습니다. 라반은 이 말을 듣고, "자네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은 한 달가량 외삼촌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보아 주면서 있으니까 라반이 하루는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무리 나의 친척이라도 공으로만 일할 수 없지 아니가? 자네가 일한 만큼의 삯을 줄 테니 서슴지 말고 자네 생각을 말해라."

야곱은 마음속으로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 7년이 되면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 주십시오"

- 창세기 29장
-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네가 비록 내 생일이야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나에게는 서른일곱 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큰딸 레아 있는데, 꼭 둘째 라헬하고 같이 살고 싶은가? 라헬은 올해 서른살인데, 야곱은 몇 살이지?"

"예, 쉰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당부하신 말씀이 생각나 스무 살 정도 낮추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나이 일흔일곱 살이었지만, 브엘세바 집에서 떠나올 적에 부모님께서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큰 아이는 30대 초반이요, 둘째 아이는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여기 와서 보니 신동하게도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밭 단아라까지 2천 리나 먼 곳의 일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내다보시고 야곱의 부모님께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기를 "그럼 라헬보다 스물 여섯 살을 더 먹었구나! 내가 좋다는데 아쩔 수 없지. 내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자네에게 시집보내는 편이 더 마음 든든하겠다. 자, 여기서 나와 함께 다녀자."라고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말이 봉사지 머슴살이와 같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라

《3장 야곱의 하나님》 (2)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헬을 위하여서라면 7년이란 세월도 그리 길어 보이지 않았고 잠깐의 세월이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외삼촌, 약속한 대로 7년이 다 왔습니다. 이제 라헬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그러하여 라반은 맛있는 술과 음식을 차려 야곱과 라헬의 혼인 잔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허너 실바를 딸려 주었습니다. 여덟이 되고 밤이 되어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를 신부로 차려 입혀서 야곱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결혼풍습으로 신랑이 베일로 가린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지낸 후, 날이 밝아 서야 그때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¹

1 한민족과 이스라엘민족은 원래 동족으로 풍속이 매우 닮아있습니다. 예컨대 결혼풍속을 보면 양가의 부모들만이 신랑, 신부의 선을 보고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심지어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교배례 의식을 치를 때에도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신부가 베일 것을 외삼촌에게 따지는 야곱 (창 29:25)

이튿날 아침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시집온 여자는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라 약간 못생기고 시력도 좋지 않은 큰딸 레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천막으로 부리나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외삼촌,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은 라헬 때문이지, 레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께서는 어젯밤 큰딸 레아를 나한테 보내셨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아, 진정하고 내 말을 좀 들어봐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신부의 얼굴에 면사포를 씌우고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 합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 이 지방의 풍속으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만약 동생이 먼저 시집가게 되면 아무도 큰딸 레아에게 장가들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찌 영영 시집가지 못하는 레아를 곁에 두고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있겠는가? 내 입장도 생각해 주렴."

"하지만 저는 라헬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라헬을 원한다면, 자네가 다시 7년 동안 일한다면 라헬을 자네에게 주겠다." 하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두 딸을 취하게 되는 야곱은 딸 하나에 각각 7년씩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편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통용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 말씀대로 7년 동안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식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살게 해주주세요."

"그렇게 하라. 대신에 먼저 결혼한 큰딸 레아를 위하여 초례 기간 7일을 채우라. 그런 연후에 라헬을 나에게 주겠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자 라반은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중 빌하를 딸라헬의 몸종으로 팔려 보냈습니다. 빌하는 노아의 장자 셈에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지는 혈통 가운데, 에벨의 10대손으로 추정되며, 장차 야곱의 장자상속을 이어받을 '단'을 낳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빌하는 라헬의 몸종으로

2 초례: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

서 비록 단을 낳은 생모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주인 라헬을 대신하였기에, 단은 라헬의 품에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자랐고 젖을 먹이는 생모 빌하는 유모라고 호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따라 태어난 '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 뜻은 '심판자'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셀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했듯이 '단은 온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되고 그녀에게 열왕이 나라리"라는 하나님의 축복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듯이, "야곱으로부터 단을 얻은 라헬은 민족의 어머니 되고 그녀의 아들 단의 자손에서 구세주 하나님이 나오시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안젤라

3 에벨의 장자 벨렉은 바벨탑 사건 이후 아르박삿을 따라 우르로 내려갔지만, 또 다른 에벨의 자손들은 니느웨에서 400킬로미터 서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란 근방의 밧단아람에서 정착하던 에벨의 심대손 '빌하'를 브두엘의 아들이 되는 것의 여중으로 들어가게끔 행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빌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어머니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자 장자상속을 물려받은 '단'의 어머니입니다. 빌하가 낳은 아들 '단'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할 것을 창세기 49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단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아'가 낳은 유다와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주목하는 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